설득 대신 단지 표현만 하라

(에스겔 2:1~10)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설득 대신 단지 표현만 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설득 대신 단지 표현만 하라'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카렌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카렌은 맨발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을 본 귀족부인이 고아가 된 카렌을 불쌍히 여겨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귀족부인과 함께 구두를 사러 가게에 갔을 때에 카렌은 공주님이 신을 것만 같이 예쁜 빨간색 에나멜 구두를 발견합니다.
부유한 귀족부인은 본래 카렌에게 정숙한 검은색 구두를 사주려고 하였지만, 카렌의 마음은 이미 빨간 구두에 현혹된 후였습니다. 결국 카렌은 눈이 어두웠던 귀족부인을 속이고 빨간 구두를 사서 신게 됩니다. 카렌은 이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도 가고 무도회에도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족부인이 큰 병에 걸려 몸져눕게 되었는데 카렌은 마을에서 열리는 성대한 무도회에 참석하느라 간호를 게을리 하였고 결국 부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렌에게 천사의 저주가 내리는데 "춤을 추어라.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어라.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몸이 싸늘하게 식을 때까지. 살갗이 해골처럼 쪼그라들 때까지. 집집마다 춤추며 돌아다녀라. 제 분수를 모르며 우쭐대며 사는 아이들이 있는 집 문을 두드려라. 그 아

이들이 너를 보고 무서워하도록 춤을 추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저주대로 카렌은 춤을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후원해주었던 귀족부인의 장례가 진행되는 중에도 멈출 수가 없어서 빨간 구두를 신은 채로 춤을 추게 됩니다. 끝없이 춤을 추던 카렌은 어느덧 사형집행을 하는 망나니의 집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자신의 발목을 잘라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발목을 자르고 나서야 빨간 구두는 벗겨졌지만, 몸에서 떨어진 구두 속의 발은 피를 흘리면서 쉬지 않고 춤을 추며 숲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야 카렌은 교회에 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족을 달고 목사님 댁에서 하녀로 일하며 성경을 배우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만한 부분은 춤을 멈추기 위해서 발목을 잘라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춘다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멈출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화에서는 결국 발목을 잘라내서야 춤이 끝이 나는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어떤 춤을 추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추었던 춤은 배고픔의 춤이고 동냥을 애원하는 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사람은 일평생을 춤을 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춤의 왕"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에는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라는 노랫말이 있기도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따르면 예수님은 춤추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추었던 춤과 예수님의 춤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카렌의 춤은 배고픔의 춤이고 굶주림의 춤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도록 창조되었기에 무한한 굶주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굶주림이 세상을 향하면 카렌의 빨간 구두와 같은 세속적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채워지고자 하는 욕구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실존을 생각해봅니다. 한 쪽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인간세상이 존재합니다.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의 춤은 바로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세상을 향한 굶주림의 춤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내었던 모습도 춤이었습니다. 이 춤은 하나님과 천국을 향한 배부름의 춤이었습니다.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이렇게 함포고복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발목을 잘라서 춤을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워

진 배부름으로 춤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는 설득의 공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외교나 문학이나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외교나 사업의 협상은 결국 타인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이고, 문학 또한 독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공감과 설득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설득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상대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합니다.

설득은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상생의 과정입니다. 나의 이익과 권세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득은 성공과 행복의 기본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교나 문학이나 사업은 물론이고 한 가정 안에서도 설득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고 부모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과 상생을 전제로 하는 설득작업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설교에서도 설득과 공감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호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과 공감을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고 입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먼저 천국을 얻어야 하며 마음에 채워진 천국을 표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을 표현하시는 분이셨지 설득의 욕구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 대해서조차 공감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노래하며 춤추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은 입을 열면 찬송으로 표현되었고 몸을 움직이면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선민의 삶 전체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카렌은 발을 잘라내고야 춤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선민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춤의 내용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카렌의 춤은 세속적 가치를 향한 굶주림의 춤이었고 채우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춤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배부름의 춤입니다. 천국으로 배부른 나를 표현할 뿐이지 만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을 자아내려 하고 호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선민이나 설교자의 삶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비롯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워져서 배부름의 춤을 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말과 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천국으로 배부른 나의 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천국을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목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채워진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구애받지 않는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유아독존식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독선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힌 모습은 오히려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표현에 집중될 때에 생겨납니다.
마음의 실존이 한쪽에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육체와 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와 세상이 사실로서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천국 또한 실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채워진 자기표현을 사명으로 여기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어떠한 반응이나 공감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에스겔은 BC. 593년에 소명을 받았고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기까지 고작 7년을 남겨둔 시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듯 이미 멸망이 확정된 상태로부터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 때까지 계속 예언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주신 소명은 천국이 실재하는 사실임을 증거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장에서 환상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비록 나라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 왔지만 하늘자체가 솟아날 구멍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배반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패역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고임 하모르딤입니다. 고임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모르딤은 반역을 뜻합니다. 선민의 마음 한쪽에는 천국을 끼고 있고 다른 한 쪽에는 육체를 통해 접하는 인

간세상을 끼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에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결코 이들의 상태에 말씀을 맞추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마음이 천국에 대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세상으로 채우기 위해서 카렌의 빨간 구두의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굶주림을 세상에서 해결하려하는 이들의 기준에 맞추어진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실재하는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고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스피커가 되고, 몸으로는 천국을 드러내는 춤을 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6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패역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싫다고 패역한 자들에게 이해와 공감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패역한 선민들의 마음이 바로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마음에서 천국을 잘라내고 세상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패역한 선민들 또한 마음은 이방인과 같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시며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호응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말씀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배부를 수 있다는 것과, 또한 마음이 천국을 향한 자들은 배부름의 춤을 추게 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처럼 굶주림의 춤을 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굶주림의 춤을 추는 자들이 배부름의 춤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맞추어진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경심을 담아서 감동적으로 들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셨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목사님의 목회는 희망이 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으로 인해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실제로 삶에서 그 희망이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철학이었습니다. 대단히 감명적인 신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 또한 결국 빨간 구두를 신고 굶주림의 춤을 추는 이들에게 조율되어진 목회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 사회도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로

마의 식민지하에서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하였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귀족계층은 유다 사회의 통치를 빌미로 특권을 인정받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은 천국으로 채워진 배부른 춤을 추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바라보며 따르려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국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던 자들은 요새로 말하자면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호응과 공감과 인정과 이해를 이끌어낼 희망적 말씀을 주시기는커녕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인간관계에 대한 의식이 단절된 것처럼 채워진 하늘만을 표현하시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십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를 생각해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의 공생애에 대해 설교를 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먹는 떡도 내 마음에 채워야 할 천국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이란 결코 빨간 구두를 신고 카렌이 추는 굶주림의 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살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굶주림에 춤추는 자가 되고, 채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공감과 이해와 인정에 굶주려서 설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와 같이 단지 채워진 하늘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배우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 내 마음까지 우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배우자를 설득하고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빨간 구두를 신고 굶주림의 춤을 추는 카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배우자 앞에서 배부름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국을 보고 배부름의 춤을 추었고 천국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따라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것으로 여기는 동안에 교회는 순수성을 잃고 세상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키려는 패역한 마음에 맞추고 조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상태를 현실적이라 하고 또 인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마음에서 잘라져버린 상태는 현실이 아니라 패역한 것입니다. 현실은 패역함과 혼동할 정도로 무가치한 것이 아닌 훨씬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백을 세상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패역함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패역함을 현실로 이해한다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상적이기에 지향해야지 결코 포기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패역한 상태에 맞추어서 말씀이 변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 느껴지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든 말씀은 그 자체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다울 수 있고, 현재의 삶을 말씀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0.1mm씩이라도 실제 인간의 삶의 상태가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패역한 상태에 말씀이 맞추어버리면 말씀이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내용적으로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패역한 마음에 공감과 이해와 호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마음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이야 말로 치욕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패역한 마음으로부터 공감과 이해와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써 치욕이고 모욕입니다. 올바른 말씀이라면 마땅히 패역한 마음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거리가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만이 진정한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잘한다는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모아놓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사이트를 열면 구독자들이 순식간에 수십만에서 백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클릭할 때의 마음가짐과 십자가 복음방송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한 번 비교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는 분들은 거의 100%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생을 십자가 생활화로 살겠다고 영적 결단을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의 구독자가 되겠다고 할 때의 마음과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면서 평생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의 무게를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는 명확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이 전파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은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구독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장악하시지 않고는 평생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의 공감이나 호응이 아닙니다. 육체로 만나는 세상처럼 실재하는 천국을 먼저 우선시하여 현실로 인정하고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쪽으로는 오직 나를 표현할 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천국을 노래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천국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배부름의 노래이고 배부름의 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달려 있을 뿐이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교인들을 설득하고 공감시키고 호응을 이끌어 내려하는 말씀이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배부름의 춤을 추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고 굶주림의 춤을 추는 것과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발목을 자르지 않고는 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목을 자르면 진짜 배부름의 춤도 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발목을 잘라야 중단되는 춤이 배부름의 춤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에서도 단지 나의 배부름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패역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천국과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단지 입으로 노래하며 몸으로 춤을 추며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